

# 보건진료원 활동사례

유 공 임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저는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동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유공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보건진료원을 희망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론과정이 짧았으나 성의있는 가르침과 잘 짜여진 내용을 배우게 된 것은 실제로 진료소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간중 가장 두려웠던것은 분만개조와 Suture Case였는데 분만실습은 거의 Observation을 통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너무 서투르고 Suture는 물론 Stich Out도 못했습니다. 교육기간동안에는 정상분만개조만 도우라고 배웠지만 막상 현지에 나가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가정 분만을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진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암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분만개조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산모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어깨너머로 몇번 보았던 분만실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고 책을 옆에 놓고 나름대로 집에서 인형으로 실습을 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수를 미리 터뜨렸기 때문에 한번도 하얀포를 쓰고 나오는 아기를 보지 못했던 터라 처음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온몸이 덜덜 떨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보내주신줄 믿사오니 이 부족한 것을 도우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

도를 올리고나니까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처음에 양수가 터졌다고 말하던 아주머니에게 색과 양터진 시간들을 다시 물어보았을 때 양수가 아니고 이슬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양막을 터뜨려야겠다는 생각이 재빠르게 떠올랐습니다. 터뜨릴 기구가 없어서 외과용 가위 직형의 날카로운 부위로 전신경을 곤두세워 조심스럽게 터뜨렸을 때 양수가 솟구쳐 올라 얼굴과 목에 물체를 받았지만 그때의 기쁨은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를 잡을 Kelly가 없어서 Hemostate 를 사용하는데 좀 불편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자르고 철저히 소독한 후 4X4 거즈를 그위에 대고 길게 거즈를 잘라 배둘레를 감고 배꼽위에 고정시켰습니다. 산모의 뒷처리를 다 해주고 아기도 깨끗이 씻긴 후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시간을 알려주어 산모를 안심시킨 후 진료소에 돌아왔습니다. 협의회장님이 깜짝놀라시며 들어오시길래 거울을 보았더니 머리 카락부터 발등까지 양수와 땀이 엉겨붙어서 이상한 모습이 되어 바라볼수록 우스웠습니다. 다른곳보다 지대가 높아 유난히 추운 이곳, 온몸이 물에 젖어 추웠지만 추운줄 모르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회열에 감사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또 한번은 출근 하자마자 어제 저녁에 분만을 했는데 뱃줄이 5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분이 넘는 거리를 가는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도와주심을 구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어두운 방에서 산모가 기진맥진한 채 제대를 다리에 묶어 두고 누워있었고 구석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진을

해보고 자궁저를 조심스럽게 맛사지 하면서 제대를 잡아당기니까 2분도 안걸리고 태반이 나왔는데 살펴보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산모의 뒷처리를 해주고 아기의 상태도 확인해본 후 제대처리를 다시 해주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대로 날을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의 싱그러움은 글썽라기들이 “축복이 너에게 쏟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이려다가 그냥 죽었지유. 조창님은 나이도 어렸것 같고만 어찌 이렇게 좋은 기술을 배우셨당가유”라고 말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아니면 그들을 돌볼이가 없다는 생각이 자신을 한없이 들뜨고 담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후에도 직접 분만개조를 세번 했고 두번 의뢰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돌보아주셔서 무사히 잘 이루어졌고 처음에 저런 애송이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말을 하며 격려해 주었을 때 그 기쁨은 눈물이 되어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오시더니 큰일났다면서 끌고 갔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근심하며 지나쳤던 Suture Case가 드러 터진 것입니다. 전날 실을 꿰어 바지에다 이 방법 저 장법 다 동원하여 연습하던 일이생각나서 시도를 해보았지만 처음으로 살을 꿰맸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실을 질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마음에 침착을 얻은 후 전력을 다하여 한바늘 한바늘 꿰맸습니다. 짝 벌어진 살이 붙고 다시 소독을 한 후 흰 거즈를 붙이면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동안 관광객들이 불에 들어가 다쳐서 오는 통에 100여 바늘 이상 봉합을 했습니다. 외란된 말씀이지만 보건진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교육 기간중 배운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으며 보다 체계화된 보건진료원용 교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적어도 1년에 두번씩은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보건지도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12월 1일 개소이래 7월 30일까지 8개월동안 약 5,819명의 환자를 보았으며 요즈음엔 1일 평균 20~25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기론 일주일에 2일은 가정방문을 다님으로써 보건지도와 환자를 조기발견하려고 했는데 진료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가정방문을 했던 것을 토대로 진료소에서 찾아오는 환자에게 상담과 문진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반상회나 경조회등을 통하여 진료소를 소개했는데 혈압이나 건강문제등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1일 평균 5~6명은 띄었습니다. 임산모, 영유아, 가족계획 업무는 보건요원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추후관리는 진료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건요원과의 관계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모두 많기 때문에 “유양”이라고 부르며 제가 관찰하고 있는 지역의 임무를 떠맡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출장나오는대로 점심 대접을 해주고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후 직무상으로 지시할 일은 지시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야 할 일은 같이 도움으로써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예방 접종은 보건요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홍역, 볼거리, 풍진은 약을 사오면 무료로 진료소에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 건강요원은 처음 가정방문때 회의를 통하여 각 마을의 부녀회장을 선출했으나 이곳은 3월부터 8월까지 가장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9월초와 증순경부터 교육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할때 “아가씨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받았는데 지금은 소장님이나 선생님으로 저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주민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계장이라는 감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진료소를 다녀간 환자들에게 진화를 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처음 다녀간 환자는 따로 기록하여 재방문시에 주소와 이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

## 특집 : 보건진료원 1년을 진단한다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쳐 울고 있으면 진료소에 안고 가서 소독약을 발라서 집에 데려다주곤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주민들과 친근해 질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언제 식사 준비를 하느냐면서 식사 대접을 받는 적도 많았고 밀반찬이나 김치등은 거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진료소내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를 약품 수불부, 보건진료원 일지, 분만일지, 영유아 기록카드, 의료장비 명세서, 항정신성약품 수불부, 공문서철, 상담자 의뢰노트, 환자 의뢰서류, 가족계획 노트, 처방전, 금전 출납부등인데 서류 정리가 많고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금전 출납부는 두권을 마련하여 한편은 지출과 수입적요를 기록하고 다른 한편은 계산서 첨부용으로 지출이 있을 때마다 협의회장님의 도장을 받은 지출 결의서와 그 위에 계산서를 붙여서 누구든지 한눈에 지출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요즘 간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에 의해 이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을 많이 의뢰해오고 있는데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를 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 보건 지도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결핵 환자는 진료소를 통해서 4명을 발견하고 중진 환자까지 9명의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이동검진을 통하여 더 많은 환자를 발견하여 결핵없는 마을로 만들려고 계획중입니다.

1981년 8월 17일 현지 실습을 하러 갔을 때 이미 군보건소의 지도하에 운영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협의회에서 1가구당 2,500원을 모금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깨끗하게 수리하였으며 전화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실습기간중 예수 병원 보건 과장님이 방문하시서 다시 협의회를 소집한다음 제가 거주할 방 문제들 상의한 결과 원세 만원과 연료비를 협의회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진료소의 운영문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체 운영으로 하며 세금통장을 협의회장님과 진료소장의 명의로 만들어 매일 농협 분소에 입금시킬

것과 1일 진료비는 500원씩 받기로 정했습니다. 8월 20일 현재 전 누계는 2,892,836원이고 지출을 제하고 난 순 수입은 1,133,276원인데 8월초에 약품을 50만원가량 구입해서 몇개월은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협의회장님은 연세가 70에 가까우신데 하루에 두번이상 꼭 방문하면서 격려해주시며 환자가 많아서 받듯게까지 근무하면 곁에 계시고 먼저 왕진 갈때면 의례히 동행해주시면서 친 손녀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선 전라북도지사님의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주군 보건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진료소에서는 7월초에 가졌던 협의회의를 거쳐 월수 5만원의 간호 보조원 1명을 두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 협의회에서 지난 7월초에 운영위원의 재선출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개편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 보건소장님과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 7월초 임시 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4명으로 결정하고 간호 보조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기금은 진료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약가를 주민에게는 500원으로 정하고 판매객들에게는 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월 월폐회를 통하여 세입 세출을 보고하고 월말 결산을 통해 다음 달의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업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체내에서 주는 진료수당은 순이익이 100만원 이상일 때 주기로 결정하여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 8월 부터 주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진료소의 면적이 약 33평으로 비좁고 제가 거주하는 곳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협의회에서 지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진료소의 신축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하기로 정하고 준비중입니다. 진료소가 있는 삼풍리엔 상수도시설과 화장실의

(20페이지에 계속)

**특집 : 보건진료원 1년을 진단한다**

·인 약 3,250명이 거주하는 벽지 진료소입니다.

·이 진료소 설치 이전에는 응급환자 및 처치환자가 발생하면 벌교읍내에 전화를 하여 택시로 읍내 의원에 나가 치료를 받는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 이 지역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마음이 항상 주민들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던차 정부에서 벽지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발표가 있다는 읍장님의 말씀과 아울러 남하 진료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에 우리 남하 9개부락 주민대표,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각각 1명씩 모두 18명이 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 박석 부락 진료소 설치 위치를 확정함과 동시에 임원선출 운영자금등 협의회를 마치고 81년 12월 1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웬만한 질병은 읍내까지 나가는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부담이 줄었으며 진료비가 염가이어서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거택 보호자나 영세민은 많은 혜택을 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임신부에게도 그렇습니다. 순진하고 소박한 농촌 젊은 여성이라서 모자보건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읍내까지 나가자니 시간도 없고 쑥스럽기만 하는 생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밭고 의지할 수 있는 소장님이 계시다는 생각에서 부담없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진작 이런 진료소가 있었다라면 더욱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여 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임신부가 출산키 위하여 고통을 느낄때 소장님께 연락하여 무사히 출산토록 조산을 하여 고통을 덜어줄 때의 고마움, 아가들의 예방접종, 가족계획상담, 계몽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나는 정부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한번 느꼈으며 더욱 욕심을 부린다면 현 진료소가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진료가 불편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소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

(18페이지에서 계속)

·위생시설이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몇몇 마을에서는 불결한 환경에서 오염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진료수입을 주민에게 환원시켜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가지씩 실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깊숙히 침투되어 꼭 필요한 진료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환자가 생길 때 걱정할것 없다며 밝게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 젊음을 이곳에 던지리라는 각오를 해 봅니다.